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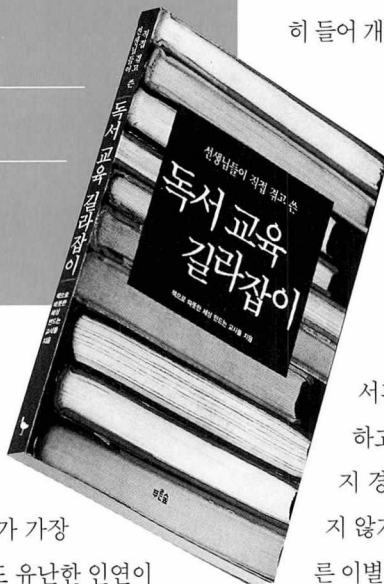
이 책은 현장 독서지도 교사들의 체험적 독서지도론이다. 알게 되면 더 많이 보이고 또 좋아하게 되는 이치를 책읽기에도 적용해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모두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서가를 누빌 수 있게 돕는다. 낚시질을 가르치는 랍비처럼 책을 제대로 고르고 읽는 방법을 세세하게 담아 마음의 양식을 낚는 방법을 보여준다.

책갈피산책

《독서 교육 길라잡이》

현장 교사들의 체험적 독서지도론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지음
푸른숲/B5/344면/13,000원



학교에서 주는 수많은 상 가운데 책과 관련한 상을 꼽으라면 생각을 더듬고 또 더듬어도 '독후감상'과 '다독상' 밖에 없는 것 같다. 방학숙제로 읽은 책을 제목, 지은이, 간략한 내용으로 묶어 적은 목록을 내면 그 수가 가장 많은 학생이 다독상을 받았다. 상에도 책에도 유난한 인연이나 욕구도 없던 터라 상 받는 친구를 그저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지만, '다독'이란 어려운 말 앞에서 조금은 부럽고 경탄에 찬 눈빛이었다.

상 자체도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 다독상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책읽기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저 많이 읽으라고 할 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무슨 무슨 책은 읽지 말라는 말은 딱지가 앉게 들었지만 말이다.

현장에서 활용할 독서지도 교본으로 손색 없어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독서지도를 하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 지도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모아 근사한 책으로 묶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안한 것을 학습과정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모아 언제 어디서든 따라 해도 손색이 없을 교본이 됐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1부는 지금까지 해온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무슨 책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모색한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을까' 하는 큰 주제를 두고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며 평가까지 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좋은 책과 나쁜

책'은 '고등학생인 양 쓴' 어른의 글이라 주의환기라는 진의가 퇴색한다.

2부는 수업 시간을 활용한 책읽기로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독서교육 사례를 제시한다. '내가 사서 읽고 권한 이 한 권의 책' '책 읽기와 삶 읽기'로 묶은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좀더 다가간다.

3부 '도서관에서 책읽기'는 독서 교육의 활동공간인 학교 도서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 활용 가능성과 성과들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례집이라 할 만큼 '중학교 국어 교사가 만든 학교 도서관' '고등학교 한문 교사가 만든 학교 도서관' 등 실례를 적절히 들어 개성 있는 학교 도서관을 계획하는 이들의 용기를 북돋운다.

행복한 책읽기와 가치있는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

지은이들이 밝히는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다.

먼저 행복한 책읽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맞는 독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책을 읽는 자세부터 책을 구분하고 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선택하고 빠르게 읽는 것까지 경로를 따라 세세하게 배운 다음에야 가능하다. 제 수준에 맞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은 책을 우연히 만나 '난처한 첫인상'에 이른 이별을 결심하면, 되돌리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든 한번쯤 해보는 '닥치는 대로 읽기'는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독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 독서환경 조성은 이 책에서 제시한 '학생들을 독서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책가죽과 수동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주성과 주체성을 길러주는 학습내용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시간에 가치를 부여한 연후에야 가능하다. 학생들이 나아갈 바를 정하는 데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독서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교사'가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 예로 든 것처럼 도서반 활동 등의 모둠활동이 그 역할을 맡는다.

각종 학과목 강의, 운동 강습과 달리 '책읽기 교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듯 틀 잡힌 독서 교육은 힘든 일이다. 교육실무를 담당한 이들과 수혜자의 날선 의식이 나날이 성장해 《독서 교육 길라잡이》라는 결실을 맺었으니, 이제 요원의 들불처럼 실천만 남은 셈이다. 이 책은 독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정신기자